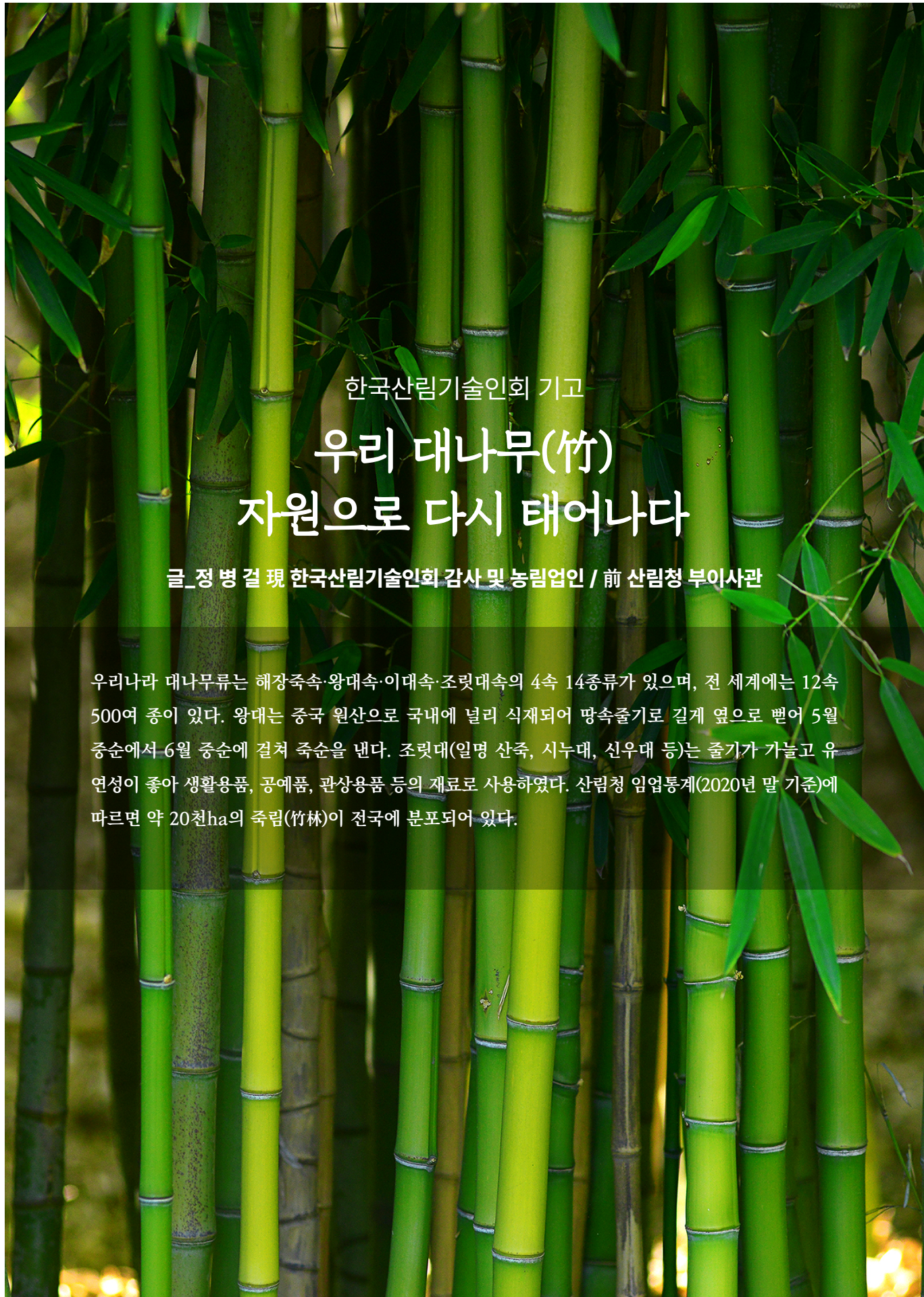




한국산림기술인회 기고

우리 대나무(竹)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다

글_정 병 걸 現 한국산림기술인회 감사 및 농림업인 / 前 산림청 부이사관

우리나라 대나무류는 해장죽속·왕대속·이대속·조릿대속의 4속 14종류가 있으며, 전 세계에는 12속 500여 종이 있다. 왕대는 중국 원산으로 국내에 널리 식재되어 땅속줄기로 길게 옆으로 뻗어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에 걸쳐 죽순을 낸다. 조릿대(일명 산죽, 시누대, 신우대 등)는 줄기가 가늘고 유연성이 좋아 생활용품, 공예품, 관상용품 등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산림청 임업통계(2020년 말 기준)에 따르면 약 20천ha의 죽림(竹林)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나무 농림가 소득 증대 도모 등 기대

최근 대나무는 생활용품, 공예품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산림에서는 조림사업 실행 시 묘목 표시봉으로 쓰이고 있다. 묘목 표시봉은 심은 나무 옆에 꽂아 풀베기, 사름울(활착울) 조사, 거름주기 등 실행 시 심겨진 묘목의 식별이 쉽게 하는 것으로 대부분 조릿대(길이 1.0m×Ø평균 8mm)나 왕대를 규격에 맞춰 여러 개로 쪼개고 다듬어 사용하는 나무심기 사업의 주요 자재 중 하나다.

2025년 임업통계를 보면 산림용 대표 조림수종인 소나무와 낙엽송이 6,500ha(총 17천ha, 38%)의 면적에 1,600만본(총 3,900만본, 40%)이 심어졌다. 이때 묘목 표시봉으로 약 20억 원(120원/개당)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주가 소유한 사유림 조림(약 13천ha)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지만 전체 사업비의 10%는 산림경영이 열악한 산주가 자부담(약 80억 원)하고 있다.

대나무(竹林)는 가옥 주변 울타리, 농경지(밭), 공한지, 산림 내 등에 분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왕성한 성장으로 굴착기로 뿌리를 제거하는 등 퇴치가 필요할 정도라고 한다. 산림 내에 분포하고 있는 산죽의 경우 나무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불발생 시 대나무의 잎과 꺾질은 불에 매우 잘 타므로 대형 산불의 확산 우려가 있기도 하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농한기(동절기 수액정지 시기)에 가옥 주변에서 묘목 표시봉을 연간 약 1천여 본 이상을 자가생산하여 산림용 조림지와 농경지(田畓)에 음나무(일명 엄나무), 참두릅, 마가목, 과수목 등



나무심을 때 함께 사용하여 표시봉 구입비를 절감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표시봉 제작은 특별한 도구 없이 작은 톱(손톱) 이나 전정가위 등을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생산이 가능하다.

국내산 묘목표시봉 생산은 재료 수집의 어려움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경제성이 낮아 값싼 중국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농번기 농촌의 소일거리로 산림조합 등을 활용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작 이용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대부분 농산촌의 마을단위로 노인회가 조직되어 있다. 농한기에 묘목 표시봉 생산 시 지역주민의 친목 도모와

공동기금 마련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으며, 또한 국유림 내에 대나무 분포지가 있을 경우 해당 마을에 국유림보호제도를 활용하면 원재료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에 있는 자원의 활용으로 외화절감 및 산림재난인 산불의 인화물질 사전저감 효과에도 일조할 것이다. 농산촌 농한기 일자리 창출, 농림가(農林家) 소득 증대 도모는 물론 농림업인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본다.

